

“재학생·졸업생간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 교류의 장”

전주비전대, 2019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 졸업과 동시 취업 연계 유학생반 졸업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일 오전 10시 대학 내 별관에서 2019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전주비전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부서장, 외국인 졸업생과 재학생, 학과 교수, 한국여 연수생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베트남인 27명, 중국인 13명 등 총 39명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특히 졸업생 중 뿌리반(소성가공금형반)으로 운영된 27명 중 23명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됐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23명은 2017년 9월에 전주비전대 뿌리반(소성가공금형반)에 입학하여 2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과 기량검증(관련 전공 졸업시험)에 합격한 유학생 들이다.

이들 23명은 KCC(3), 서일(3), 신흥정밀(3), 은해기업(4), 평강BIM(2), 현대중공업(3) 기타(5) 등 금형·자동차부품·특장·중공업 분야로 취업하게 되며 졸업생 중 기량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12월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정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전주비전대학교는 2일 대학 내 별관에서 2019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0명의 외국인을 선발, 교육 후 뿌리산업분야 기업에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월반 30명을 모집하고 있다.
졸업생 베트남 출신 단리만(소성가공금형반,

TOPIK 5급) 씨는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다”며,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기술을 배운 후 귀국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경찰, 군부대 방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2일 7733부대를 방문해 군인 100여명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군인들 대상으로 일어난 음주운전 사례 소개 및 위반 유형에 대한 것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 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히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제3회 소태산 영화제 준비 박차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올해 가을 개최되는 제3회 소태산 영화제 준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 공유와 함께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원광대 총장실에서 열린 1차 준비회의는 박맹수 총장과 소태산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해 온 유동종(한국독립영화협회) 감독을 비롯해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문화사회부, 원광대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 등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제3회 소태산 영화제는 2019년 가을 원불교문화사회부와 공동 주최로 원광대에서 개최되며, 작품성과 재미, 시대정신을 담아낸 독립영화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종교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상과 예술혼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발산하는 영화제,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화제를 지향하고, 원광대 재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쉽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영화제 등의 방법으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선관위, 이장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유량)는 지난 2일 상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장 회의를 통해 이장 등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는 8월 상전면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관내 11개 읍·면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강의내용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장 등의 선거운동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했다.

진안군선관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위법행위 없는 청정 선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성공

익산시청 펜싱팀이 전국 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의대와 호남대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안산시청에게 안타깝게 패배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경기에 출전한 전북 펜싱 강관인 김지연은 서울시청의 윤지수 선수와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 예외 단체전에 나선 남자 검객들도 이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은성 기자

남원경찰, 택시기사에 감사장 전달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2일 자신의 택시에서 고액의 가방을 발견해 경찰서를 방문 신고한 기사 지원용씨에게 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지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4시경 교령의 분실자가 자신의 차에 현금 700여만원과 주민등록증, 통장 등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가방 속의 신분증 주 소지 관할 과출소로 방문 신고한 것에 감사장을 수여했던 것이다.

감사장을 받은 지원용씨는 “누구라도 내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지원용씨의 신속한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로 안타까운 사정을 없앨 수 있었던 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재 정비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하반기 지역경찰 인사발령으로 일부 직원이 교체됨에 따라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는 탄력순찰활동과 병행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담당구역 변경에 따라 담당경찰관 사진 및 연락처 정비와 아크릴꽃이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하고 있다.

박종삼 무주경찰서장은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민착형 탄력순찰과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